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 승인’ 임박

광주지법,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시, 배상금 지불해야 될 처지…전략 수정 불가피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선 ‘SRF(Solid Refuse Fuel·비성형 고형폐기물연료)열병합발전소’ 가동 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면서 발전소 가동 승인이 임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정부의 ‘자원 순환형 에너지 도시’ 조성 계획에 의해 설치됐지만 가연성 생활 쓰레기로 만든 SRF 연료 사용을 놓고 주민들이 대기 환경 오염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와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를 상대로 제기한 ‘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가처분 소송 기각으로 한난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손해배상 소송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반면 나주시는 ‘진퇴양난’의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1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한난에 물어줘야 하고, 승인을 해 줬을 때는 발전소 가동에 반발하는 범대위 소속 주민들이 제기하는 ‘집단 민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민사21부(박길성 판사)는 나주시 등이 지난해 12월 한난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법원은 애초 협약과 다르게, 한난이 발전소 사용 연료로 ‘비성형’ 고형연료를 반입한 것은 ‘합의서 위반’이라는 나주시의 주장에 대해, 해당 발전소는 성형과 비성형 연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주시와 범대위 측이 제기한 ‘포괄적 환경권 및 환경상 위해 발생 여부’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발전소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상의 대기오염물질(다이옥신 포함)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돼 있고, 피해 주장과 관련된 과학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로 제조한 고형연료를 발전소에 사용하는 것도 합의에 위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나주시가 지난 23일 즉시 항고를 했지만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유해성 부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승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시가 가처분 기각 결정 이후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부분이다.

한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나주시가 SRF연료 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아 액화천연가스(LNG)만 사용하면서 42억5000여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나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여기에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입은 손해와 한난에 SRF연료를 공급 중인 ㈜빛고을 청정이 발전소 가동 차질로 입은 연료 공급 중단에 따른 손해금까지 합산해서 청구할 경우 손배소 금액은 100억원 이상으로 불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시는 가처분 기각 여파로 계속해서 ‘발전소 건축물(공장) 최종 준공 승인’과 ‘고형연료 사용신고’ 허가를 미룰 경우 엄청난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략 수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내 몰려 있다. 이러한 승산 없는 소송을 이어가다 1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무모한 싸움”이라며 “건축물 준공승인과 고형연료 사용신고 허가를 해 준 다음에 환경성 조사를 통해 유해성 여부를 가리는 쪽으로 방향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시가 건축물 사용 승인과 고형연료 사용신고 허가를 내 줄 경우 한난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주춘정 기자

국회 앞 경찰-민주노총 대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5.28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열고 국회로 향하기 위해 경찰 펜스를 흔들고 있다.

검찰, 광주 집단폭행 특수중상해 혐의 등 기소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공동상해로 송치된 구속자 5명에 대해 특수중상해와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의 경위·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 봤을때 일각에서 제기된 살인미수 혐의의 적용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28일 A(31) 씨 등 5명에 대해 특수중상해와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25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술집 앞 도로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일었던 B(31) 씨 일행 4명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 B 씨가 눈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B 씨의 오른쪽은 거의 실명 상태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지난 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 온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부에 현장 CCTV를 포함한 목격자 스마트폰의 화질 개선과 음성 분석을 의뢰했다. 또 사건 현장 영상 6개를 추가로 확보, 면밀히 분석했다.

사건 전반을 다시 살핀 검찰은 이들에게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부위와 반복성, 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중상해와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치료 과정에 B 씨의 오른쪽 눈에서 발견된 2.5㎝ 크기의 나뭇가지는 실명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나뭇가지가 안구의 시신경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B 씨 눈 부위의 외관을 살펴봤을 때 폭행의 충격이 실명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가해자 중 한 명이 돌멩이를 잡아 내리치는 장면이 영상속에 담겨 있는데 확인 결과 피해자를 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돌멩이를 집어 든 가해자는 ‘실제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생각은 없었다. 겁을 주기 위함 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를 향한 ‘죽여버리겠다’는 고함 또한 감정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 속 일시적으로 내뱉어진 위협으로 봤다.

검찰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살인미수 혐의의 적용은 어렵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상해죄 보다는 형량이 무거운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 적용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임형택 기자

구례서 SUV 저수지 추락 2명 사상

28일 오후 1시51분께 구례군 간전면 순천 방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A(67) 씨가 몰던 SUV 차량이 오른편 가드레일을 뚫고 수심 5m로 추정되는 저수지에 빠졌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A 씨의 부인 B(62·여)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운전자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왼쪽으로 굽은 오르막길에서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무안발 제주행 티웨이항공 3시간 지연

무안공항에서 제주로 출발하려던 티웨이 항공기가 3시간여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8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5분 무안공항을 출발하려던 티웨이항공 TW931편이 당초 예정시간보다 늦은 오전 9시38분 제주로 출발했다.

항공사 측은 항공기 안전점검을 이유로 출발이 지연됐다고 밝히면서 승객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항공기 지연으로 제주로 출발하려던 탑승객 160여 명의 발이 3시간여 동안 공항에서 묶였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점검 이외 구체적인 지연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사찰서 연등 구입비 훔친 70대 입건

광주 남부경찰서는 28일 사찰에서 연등 구입비를 훔친 혐의(절도)로 A(7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부처님 오신 날인 지난 22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 남구의 한 사찰 마당에서 박스에 든 80만원 상당의 연등구입비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폐지를 수집하는 A씨는 신도들이 연등을 구입할 때 낸 돈을 박스에 담아둔 것을 확인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사찰 관계자가 일을 보러 법당 쪽으로 이동한 사이에 욕심이 났다”고 진술했다.

광주 도심서 편의점 강도…경찰 수사

새벽시간 광주 한 편의점에 남성이 침입,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7분께 광주 광산구 한 편의점에서 남성이 흉기를 든 채 여종업원을 위협해 20만원을 빼앗아 도주했다.

이 남성은 20~30대로 추정되고 키 170㎝ 가량에 모자와 장갑,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편의점과 주변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도주 경로를 파악하는 등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다.

임형택 기자

빨랫줄 잡고 원룸 침입 30대 강도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원룸에 침입해 홀로 사는 여성을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로 박모(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40분께 광주 북구 한 원룸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들어가 잠자던 A(31·여)씨를 위협·협박하고 스마트폰과 체크카드를 빼앗아 3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원룸 옥상에서 2시간여 동안 침입 방법을 연구한 뒤 빨랫줄을 잡고 베란다 난간 화분 거치대 쪽으로 내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A씨의 신체 일부를 묶고 출입문·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인호 기자